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 공모신청 접수

정읍시가 지역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정부지원 RPC와 비RPC농협(DSC)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개보수와 벼 수매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벼 시설 개보수 사업은 개소당 6억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부지가 협소해 이전을 통한 신축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벼 수매용은 2톤 일반형 기준 1개당 80만원 이내에서 사업자별 최대 300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우수브랜드 쌀 선정 업체와 2024년 벼 수매기를 인상 또는 동결한 업체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자유총연맹, 자유수호 희생자 등 합동위령제 실시

자유를 수호하다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제45회 합동 위령제가 지난 24일 정읍 내장산 한빛자유수호기념비 앞에서 열렸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회장 심정술) 주관으로 열린 이날 위령제에는 유가족과 각계 인사 7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추모하고 안보 의식을 다졌다.

이날 위령제에는 이학수 시장·박일 시의회 의장·최용훈 교육지원청 교육장·박상훈 정읍경찰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자유수호 희생자 유가족, 연맹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과보고·종교의식·조시낭독·추념사·추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심정술 회장은 추념사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뜻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월영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열린다

정읍시·내장산국립공원 맞손... 새로운 탐방로 열어

정읍시의 대표적인 생태 보고인 월영습지로 가는 길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읍시와 내장산국립공원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국가생태탐방로(보존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단절됐던 옛길을 복원해 새로운 탐방로를 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조성될 구간은 죽림마을에서 월영습지(3구간)에 이르는 길이 1km 폭 2m의 옛길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위탁사업비 부담과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내장산국립공원은 공사 수행과 탐방로 고시 등을 맡아 추진한다.

월영습지는 산 종턱에 형성된 희귀 산지내륙습지로 깃대종인 진노랑사슴



화와 구렁이가 수달·삼 등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하지만 기존 탐방로는 월영마을에서 시작돼 길이 좁고 가파른 데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탐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학수 시장은 "죽림마을에서 시작되는 보존길이 개통되면 탐방 시간이

단축되고 접근성이 좋아져 계절에 상관없이 월영습지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생태탐방로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장산 인근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지역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10년간 약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탐방로 4곳·생태체험장 1곳·방문자센터 1곳 조성을 완료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는 연간 방문객 수가 2023년 1만 587명에서 2024년 3만 425명으로 급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센터는 솔티숲체험·모시떡 만들기 등 15종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스마트경영 혁신 '최우수'

정우면 따옴농장 황중운 대표 수상... 전국 최고 입증

정읍시 스마트농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읍시는 지난 23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 대회'에서 정우면 따옴농장 황중운 대표가 스마트경영 혁신 사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황 대표가 전북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해 얻은 결

과로, 정읍시의 스마트농업 실천과 경영혁신 능력을 전국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기술 활용도·경영혁신 성과·농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다.

황중운 대표는 △스마트팜 자동제어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재배관리 △데이터 기반 생산·경영 분석으로 수익성 향상 △청년농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송와 박영관 선생 공적비 이전 기념식 개최

고창군이 지난 24일 오전 무장면 도곡리 285-4에서 송와 박영관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사)송와 박영관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마을회관 앞에 위치했던 공적비를 박영관 선생 생가 인근으로 이전해 선생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지역의 항일운동 정신을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관 선생은 고창 무장 출신으로, 1919년 3월 15일 무장 읍내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 모집에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



다.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기념사업회 관계자, 전북서부보훈지청,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기념사, 제막식, 헌화,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박영관 선생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스마트경영혁신대회 최우수상 수상

부안 청년 농부 최아연·이원준 대표, 라이브커머스 부문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은 지난 23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 농업인 스마트경영혁신대회에서 피칸을 직접 재배하며 품목 특성화 차별화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 농부 최아연·이원준 대표가 라이브커머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 시도별 예산에서 이미 우수한 성과를 거둔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 기술과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사례를 공유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진행됐다.

최아연 대표는 부안군에서 피칸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 판매까지 전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한 라이



브커머스 부문에서 주로 미국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아열대성 견과류로 국내 재배가 어렵다고 알려져 왔던 작목을 부안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해 피칸의 국내 재배 가능성을 입증하며 한국에서도 피칸이 자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인재육성 장학금 기부 열기 뜨겁다

지난 21~24일 9개 단체·개인 참여 총 1억300만원 전달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에 지역 각계 기관과 기업 개인들이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며 '차량 중심, 교육 중심 도시 고창'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날 21~24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기탁 행렬에 9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해 총 1억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에는 △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 5000만원) △참바다(대표 김종학, 3000만원) △우진아이에스(대표 강우진, 500만원) △(사)일일선인성운동본부 고창지회(500만원) △(유)테리건설(대표 김윤석, 300만원) △(유)엘머스트(대표 이성호, 300만

원) △지평환경산업(대표 김기문, 300만원) △이천영, 조성원, 김재원(300만원) △고창농촌개발대학(회장 고정호, 100만원) 등이 참여했다.

고창군산림조합 김영건 조합장은 "조합원 모두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곧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참바다 김종학 대표는 "바다에서 자란 물고기가 다시 고향 바다로 돌아오듯, 고창의 아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장해 고향을 빛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997년에 설립된 (재)고창군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30년간

랑 장학사업을 이어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 특성상 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 운영, 장학금 확대를 통해 체감형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고창에서 꿈을 키우고, 다시 고창으로 돌아오는 인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심덕섭 (재)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개인, 학생들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고창군이 '장학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내년 재단 30주년을 계기로 장학사업을 더욱 활력 있게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이 '고창에서 배우고, 자라서, 고창에서 일하는' 고창 교육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25 고창 꽃정원 행사' 개최

고창군이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3일간)까지 고창꽃정원에서 2025 고창 꽃정원 행사를 개최한다.

고창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화, 백일홍, 코스모스 등 가을꽃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와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방문객들은 인생네컷, 핸드케이 체험, 물러라! 플라워 가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잔디광장 무대에서는 퓨전 클래식, 풍기타 등 지역 및 전문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과 패션쇼가 진행되며, 관객과 함께하는 추억의 게임 3종 대결도 펼쳐진다.

추억의 게임은 팀별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꽃만 뒤집기, 딱지치기 등 세 가지 전통 게임에 참여하여 경쟁하며, 우승팀에게는 고창사랑상품권이 제공된다. 해당 게임은 현장 선착순 접수를 통해 2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꽃밭 포토존과 플라워 양산 대여 서비스가 진행된다. 고창군 SNS 계정 팔로우 및 사진



업로드시 즉석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제공하는 '찰라! 꽃 피는 순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꽃차 및 과일 나눔, 파인볼 체험 프로그램은 통해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